

서 면 답 변 서


- 질의 위원 : 채명지 의원
- 답변공무원 : 경제지원과장
- 질의 요지 : 우리군내에 약 1,200여 개의 기업체, 법인단체가 있음. 그러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2곳으로 부족한데, 예를 들어 우리 달성지역 자활센터에서는 행복푸드와 '푸른판매'에서 참기름도 생산하고 있음. 이러한 분야도 사회적기업 지정하기 위해 우리군에서 검토하고 있는지와 선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

□ 답변내용

- 대구형 (예비)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,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단체(기업)로서,
- 조직형태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고,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·허가·신고·인증 등을 받은 조직(단체)이 민법에 따른 법인·조합, 상법에 따른 회사, 비영리민간단체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.
- 우리지역 자활공동체 중 행복푸드(외식), 푸른판매(참기름, 깨 판매)는 상기의 내용에 충족될 수 있어, 자활공동체 사업체에서 출발해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, 따라서 2012년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
- 우리군은 (예비)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, 우선구매 등의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 사회적기업으로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탄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- 그리고 우리지역의 여건과 현실에 적합한 업종 및 아이템의 발굴, 지역자원의 연계와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취약계층의 참여 비중을 높이도록 하여, 사회적기업이 지원 종료되더라도 자립가능성과 지속고용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.

2011년 9월 일

직 성명 경제지원과장 황 영 근 (인 )